

語頭子音群의 硬音化와 激音化¹⁾

정 승 철

1. 머리말
2. 초성 합용병서와 어두자음군
3. 음소배열 제약과 어두자음군의 변화
4. 맺음말

1. 머리말

15세기 국어의 어두자음군과 관련하여 제주 방언은, 경음으로의 대응을 보이는 대부분의 현대 방언과 달리 격음으로의 대응을 보인다(李基文 1955)는 점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를 유발한 변화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검토된 적이 없는 듯하다.²⁾ 어두자음군이 직접 격음으로 변화하였는지 아니면 격음화한 후 어두자음군의 첫 자음이 탈락하였는지, 또 국어사에 있어서 경음화의 대세 속에 그러한 격음화는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 하는 논점들이 어두자음군에 대한 논의에서 그 중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주 방언의 어두자음군에 관한 한, 변화의

-
- 1) 이 논문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어두자음군이 축약을 거쳐 격음으로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후술). 따라서 이때의 격음화는 ‘ㅎ’축약에 의한 격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2) 이러한 점에서 崔林植(1989)에 큰 의의를 둔다. 崔林植(1989)에서는 어두자음군이든, 어중자음군이든, 자음군의 변화로서의 경음화와 격음화를 서로 연결 지어 폭넓게 다루면서 “내파화를 위한 성문폐쇄(협착)의 정도”(159면)에 따라 각 방언이 경음화를 선택하기도, 또 격음화를 선택하기도 한 것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자음군의 경음화와 격음화가 “내파화규칙의 적용에 의하여 動機化”(161면)된 것으로 본 셈이다. 다만 필자는 “내파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崔林植(1989)과 견해를 달리한다.

결과에 비해 그 과정은 관심 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셈이다.

이 논문은 15세기 국어의 어두자음군이 제주 방언에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격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격음화에 중점을 두면서 15세기 문헌에 등장하는 어두자음군과 현대 방언에 반사된 방언형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두자음군의 변화와 관련된 경음화와 격음화의 史的 순위 그리고 이들 변화의 내적 動因이라 할 음소배열 제약의 생성과 확산 과정 등을 추정해본다.³⁾ 그러한 모든 작업이 결과적으로는, 제주 방언이 경험한 어두자음군의 격음화와 음소배열 제약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2. 초성 합용병서와 어두자음군

15세기 국어의 초성 합용병서에는 ‘ㅂ’계, ‘ㅃ’계, ‘ㅅ’계의 세 계열이 있었다.⁴⁾ 이 중에 ‘ㅂ’계와 ‘ㅃ’계 합용병서는 ‘ㅂ’계 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해, ‘ㅅ’계 합용병서는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⁵⁾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李基文 1972/1977:47-63).

- (1) ㄱ. 𑖇(월석 1:28, 密) 𑖇(구방 하:32, 鑿) 𑖇디-(능엄 2:95, 墮)
 ㄴ. 𑖇(금삼 2:38, 筏) 𑖇-(월곡 65, 開) 𑖇-(능엄 8:139, 躍)
 ㄷ. 𑖇(월석 7:9, 時) 𑖇르-(내훈-초 1:3, 刺)
 ㄹ. 𑖇(월석 19:20, 澁) 𑖇(능엄 2:69, 拂)
 ㄴ. 𑖇(석보 6:14, 米) 𑖇(능엄 3:75, 艾) 𑖇계(금삼 2:60, 膽) 𑖇-(월석

- 3) 이 논문에 인용된 문헌 자료의 예들은 상당 부분, 한글학회(1992)에 의존하였다.
 4) 이들 ‘병서’에 대한 연구사는 박창원(1990)과 박창원(1996)의 부록 2(병서연구사)를 참조.
 5) ‘ㅅ히(석보 19:14, 男)’에서의 어두 ‘ㅅ’은 경음이 아니라 ‘ㅅ’계 자음군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에서, 어두 위치의 경음은 모두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하였지만 ‘ㅅ’계 합용병서가 모두 경음을 표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술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ㅅ’ 등의 특정한 자음군은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하면 이 시기의 ‘ㅅ’계 합용병서가 모두 경음을 표기한 것으로, 서술을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李基文(1972/1977:50)에서는 ‘ㅅ’을 “文字 그대로 [sn]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ㅅ히’ 한 예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ㅅ’계 자음군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2:55, 用)

ㄴ. ㅼㅅ(훈민-원 해례:21, 隻) ㅼㅅ-(능엄 9:53, 織)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 위치에 한하여 초성에 두 자음까지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위치에서 모든 자음이 다 자음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자음군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는 (1)에서 보듯이, 첫 자음이 ‘ㄴ’이고 후행하는 자음이 ‘ㄱ(ㄲ), ㄷ, ㄸ(ㄹ), ㅌ, ㅍ, ㅆ’일 때뿐이었다.

이들 자음군에서 첫 자음 ‘ㄴ’이 받음되었음은 ‘菩薩[밭]’이 나타나는 『계림유사』의 자료(‘白米曰漢菩薩’), ‘ㅌ’의 경음일 수 없는 ‘ㅼㅅ’의 존재, ‘훈ㅼㅅ(월곡 39)>훈ㅼㅅ(번소 10:6, 同)’ 등 양순음화를 보이는 예, ‘부릅ㅼㅅ-(努), 입때(此時), 좁쌀(粟)’ 등 ‘ㄴ’의 화석화를 보여주는 현대국어 합성어의 예, ‘테(筏), 트-(開), 튀-(躍), 착(隻), 츠-(織)’ 등 특별한 이유를 가지지 않는 한 격음으로의 일관된 대응을 보여주는 제주 방언의 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李基文 1972/1977:56-63). 기원적으로 어두 ‘ㄴ’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2) ㄱ. ㅼㅅ(두해-초 20:39, 雉) ㅼㅅ-(석보 6:25, 席)

ㄴ. ㅼㅅ(월곡 36, 女兒) ㅼㅅ-(남명 하:18, 帶)

ㄷ. ㅼㅅ(석보 13:53, 角) ㅼㅅ(석보 9:37, 溺)

ㄹ. ㅼㅅ-(훈민-원 해례:21, 射)

한편 (2)에서처럼 15세기 국어의 경음 ‘ㄱ, ㄷ, ㅌ, ㅍ’은 각각 ‘ㄱ, ㄷ, ㅌ, ㅍ’의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었다.⁶⁾ 그런데 이러한 ‘ㅅ’계 합용병서를 경음 표기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박창원(1996:184-187)의 예를 재인용한다).

(3) ㄱ. ㅼㅅ(월석 8:90, 修) ㅼㅅ(능엄 7:16, 炭)

ㄴ. ㅼㅅ(월석 7:14, 修) ㅼㅅ(능엄 8:98, 炭)

6) 이 논문에서 각자병서는, 관형형 어미 ‘ㄴ’ 뒤에서 일어난 경음화의 결과로서의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 ‘ㅅ’계 합용병서와 구별되어 쓰인 것(末詰儀 1987:353)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ㅼㅅ’은 합용병서이면서 각자병서이지만 ‘ㅼㅅ(射)’의 경우에는 ‘ㅼㅅ’이 ‘ㅅ’의 경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합용병서의 예로 제시하였다.

- (4) ㄱ. 잇ㅁ장(능엄 4:75) 부텃긔(원각 상 2-2:2)
 ㄴ. 이ㅁ장(석보 13:37) 아자바님내긔(석보 6:1)

위의 예에서 보듯이, 같은 형태소에 대하여 ‘ㅁ\$C’의 음소 연쇄 표기와 ‘ㅁ’계 합용병서 표기가 동시 출현을 보이는 예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3)에서는 어간의 말음이, (4)에서는 조사(또는 합성 조사)의 두음이 ‘ㅁ\$ㄱ’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초성 합용병서 ‘ㅁ’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동일한 발음에 대한 異表記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이들을 동일 발음의 異表記로 간주하면 극단적으로는 ‘ㅁ’계 합용병서가 ‘ㅁ’계 자음군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중성 ‘ㅁ’이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았는지 하는 결과도 도출된다.

하지만 ‘비비-(능엄 8:41)>삐비-(능엄 2:83, 擦)’ 등 어두 경음화를 겪은 예는 ‘ㅁ’계 합용병서가 경음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李基文 1972/1977:53). 또한 ‘밧바당(능엄 2:115)>밧바당(능엄 10:79, 足心)’ 등 ‘ㄹ’탈락을 보인 예는 ‘ㅁ’이 중성에서도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음을 알려준다(박창원 1996:189-191).⁷⁾ 따라서 ‘ㅁ’계 합용병서는 경음의 표기이며 중성 ‘ㅁ’은 제 음가대로의 표기이므로 (3)과 (4)의 두 표기는 동일한 발음이 아니라 상이한 발음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시기에, 동일한 형태소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상이한 발음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음소의 변동을 일으킨 음운 현상, 특히 경음화와 ‘ㅁ’탈락 현상이 관여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3)과 (4)은 경음화를 겪은 ‘ㅁ\$ㅁ’에 대한 음소 표기이며 (3)과 (4)은 경음화 이후 ‘ㅁ’탈락을 겪은 ‘∅\$ㅁ’에 대한 음소 표기인데 ‘ㅁ’ 뒤의 경음화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일이 흔하여 ‘ㅁ\$평음’ 표기와 ‘∅\$경음’ 표기의 출현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음화에 관한 한, 15세기 국어는 폐쇄음 뒤의 경음화를 표기상으로 전혀 드러내주지 않는다(宋喆儀 1987:352). 그렇지만 폐쇄음이 아닌 마찰음 ‘ㅁ’ 뒤

7) 李基文(1972/1977:51)에서는 훈민정음의 모든 문자가 그 본래의 음가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이시옷”으로 사용된 ‘ㅁ’만은 이 원칙의 예외가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른바 “사이시옷”의 경우에도 중성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본다.

에서의 경음화 표기는 이 시기의 문헌 자료에서 간혹 발견된다.

- (5) ㄱ. 앓기-(앓기눗다; 석보 6:26, 惜) 붓가(능엄 2:126, 炒)
- ㄴ. 앓끼-(앓끼노라; 두해-초 23:32, 惜) 붓까(구방 상:74, 炒)
- ㄷ. 아끼-(아킴; 법화 4:153, 惜) 보까(구방 하:28, 炒)

(5ㄱ)의 ‘앓기-(惜), 붓가(炒)’와 비교해 볼 때 (5ㄴ)의 ‘앓끼-, 붓까’는 ‘ㅅ’ 뒤에서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이진호(1997:110-112)에서는 종성 ‘ㅅ, ㅈ’의 중화 이후에 일어난, ‘ㄷ’에 의한 경음화로 보았다. 하지만 15세기 국어에서 종성의 ‘ㅅ’과 ‘ㄷ’은 ‘젓스오며(능엄 7:28), 절느다(남명 상:54, 懇)’ 등과 같은 ‘ㅎ’말음 용언어간의 경우, ‘쫓즈바(월석 2:18), 존즈바(월석 7:8, 隨)’ 등과 같은 ‘-줄-’에 통합되는 ‘ㅈ, ㅊ’말음 용언어간의 경우를 제외하면⁸⁾ 엄격하게 구별되었다(金周弼 1988:215, 安秉禧 2003:6-12)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앓끼-, 붓까’는 마찰음 ‘ㅅ’ 뒤에서 경음화를 직접 겪은 예라고 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다시 말해 (5)는 15세기 국어에, 마찰음 ‘ㅅ’ 뒤에서의 경음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다(鄭承喆 1997:437-438).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경음을 ‘ㅅ’계 합용병서로 적은 이유가 이해될 수 있다. ‘ㅅ’이 경음화의 動因이 되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경음화는 ‘ㅅ’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당시의 음소배열 제약이 관여한 데에 기인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이를테면 ‘앓기-, 붓가’와 ‘앓끼-, 붓까’는 경음화와 관련하여 동일한 발음에 대한 異表記이지만 전자보다는, 당시의 음소배열 제약이 반영된 후자를 언어 현실에 더 철저한 표기로 인정하는 셈이다. 한편 (5ㄷ)의 ‘아끼-, 보까’는 경음 앞에서 ‘ㅅ’이 탈락하였음을 나타내준 표기로 이해된다.¹⁰⁾ 이와 관련해서는, 비록 ‘-습-’으로 한정하기는 하

8) ‘꺄갸(월석 21:54)’과 ‘꺄갸(석보 11:21, 恚)’은 종성 ‘ㅅ’과 ‘ㄷ’의 중화를 보여주는 15세기의 예로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安秉禧(2003:12)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전(專)+갸(強)’과 ‘전(專)+갸(如)’으로, 어휘적 구성이 다른 것이었다.

9) 물론 이러한 추정에는 15세기에 경음을 두 소리로 인식하고 있었으리라는 점(鄭承喆 1997:438)이 전제된다. 한편 ‘ㅅ’이 경음화의 動因이 될 수 있음은 영어에서 ‘s’ 뒤의 파열음이 기식을 상실하여 마치 국어의 경음처럼 발음된다는 점이 참조된다.

10) 이는 현대국어에서 ‘먹고→먹꼬’의 경음화 이후, 선행하는 어간의 말음 ‘ㄱ’이 탈

였지만 김현(1997:55-56)에서 경음 앞의 ‘ㅅ’탈락이 언급된 바 있다. ‘깃습고→기쭉고(喜)’를 선행 ‘ㅅ’에 의한 후행 ‘ㅅ’의 경음화와 경음 앞에서 “음절적 효과가 없는” ‘ㅅ’의 탈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 (6) ㄱ. 밧긔(월석 1:22)~바피(월석 1:23, 外) 옷듬(석보 9:18)~으뜸(법화 1:7, 首) 어엿비(원각 서:41)~어여뻬(월석 2:52, 憫) 닳기-(월석 17:16)~답끼-(능엄 2:77, 闕)
- ㄴ. 숲가락(능엄 6:104)~손까락(월석 7:38, 指) 값간(석보 13:53)~잠잔(석보 6:6, 暫間)
- ㄷ. 좃스바뇨(월곡 28)/조쌍와(능엄 1:52, 稽) 앉거늘(석보 6:21)~안꺼늘(석보 24:44, 坐)

(6)은 형태소 내부의 ‘ㅅ’이든, “사이시옷”의 ‘ㅅ’이든, 또 음절말 중화를 겪은 ‘ㅅ’이든 평음이 후행했을 경우에 이를 경음화하였음을 알려준다. 특히 (6 ㄷ)은 용언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ㅅ’이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을 경음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체언어간이 조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ㅅ’에 의한 조사 두음의 경음화가 이 당시의 표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 환경에서의 경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¹¹⁾ 말하자면 ‘ㅅ’ 뒤에서의 경음화는 곡용이라는 형태론적 범주가 제약이 되는 형태음운 규칙이었던 셈이다. 이는, ‘ㅅ’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당시의 음소배열 제약 또한 곡용에서는 작용하지 않는 것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¹²⁾

한편 ‘맛즈바(월석 1:13)~마쯔와(능엄 5:68, 迎), 좃즈바(석보 13:59)~조쯔바(월석 9:35, 隨)’ 등은 ‘ㅅ’ 뒤에서 ‘ㅈ’도 경음화하였음을 알려준다.¹³⁾ 그

락하여 ‘머꼬’로 발음되는 것과 평행하다.

- 11) ‘세췌(석보 19:13), 터럭췌(월곡 92)’과 비교해 볼 때 ‘훈것분(석보 13:39)’은 ‘것’의 발음 ‘ㅅ’으로 인해 조사의 두음이 평음으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李基文 1959/1978:64, 박창원 1996:186). 이를 고려하면 15세기에 체언어간의 발음 ‘ㅅ’에 의한 경음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경음화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므로 일단, 체언어간의 발음 ‘ㅅ’은 후행하는 조사 두음의 경음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둔다.
- 12) 19세기에 일어난 순음 뒤에서의 원순모음화(‘으>우’)도 이와 평행한 모습을 보인다. 이 현상 또한 순음과 모음 ‘으’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과 관련되었을 텐데 그것이 활용(‘깃븜-을→깃부물’)에서와는 달리 곡용에서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李秉根 1976:8).

런데 ‘졸궤바(월석 7:8, 隨)’와 ‘조궤바(월석 9:35, 隨)’는 이 시기에 폐쇄음 ‘ㄷ’이 후행하는 ‘ㅈ’을 경음화한 것처럼 보이게도 한다. 하지만 이는 폐쇄음 ‘ㄷ’ 뒤에서 ‘ㅈ’이 경음화했음을 보여주는 표기가 아니라, 당시에 변이음적인 성격을 지녔던 ‘ㅈ’의 재분석과 관련하여 ‘ㅈ’ 앞에서 ‘ㄷ’과 ‘ㅅ’이 혼기된 데에서 비롯한 표기로 여겨진다. 즉 파찰음의 경음 ‘ㅈ’은, 경음을 두 소리로 인식했을 당시에는¹⁴⁾ 폐쇄적 요소(ㄷ)와 파찰음 ‘ㅈ’으로 재분석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궤바(隨)’에 대하여 ‘졸궤바(隨)’는 바로 그러한 재분석을 반영한 표기였으리라는 것이다(鄭承喆 1997:438).¹⁵⁾ 宋喆儀(1987:346)에서 ‘ㄷ+ㅈ’이 ‘ㅈ’이 되는 것을 “역으로 類推하여” ‘조궤-’에서 ‘졸궤-’를 이끌어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진술이 참조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국어의 ‘ㄷ’계와 ‘ㅈ’계 초성 합용병서는 ‘ㄷ’계 어두자음군을 표기한 것이었다. 당시의 어두자음군은 첫 자음이 ‘ㄷ’이고 후행하는 자음이 ‘ㄱ, ㄷ, ㄸ, ㅌ, ㅅ, ㅈ’일 경우에 한하여 실현되었다(李基文 1972/1977:56-63). 한편 ‘ㅅ’계 초성 합용병서는 경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로는 마찰음 ‘ㅅ’ 뒤에서의 경음화 현상과 경음 앞에서의 ‘ㅅ’탈락 현상으로 인하여 중성 ‘ㅅ’과 후행 평음의 연쇄가 ‘ㅅ’계 초성 합용

13) 이 경우에 경음화된 ‘ㅈ’이 각자병서로 표기된 것은 이 당시에 경음 ‘ㅈ(ㅈ)’이 독립된 음소로서 존재하지 않았기(李基文 1972/1977:52-53) 때문이다.

14) 『훈민정음』에 합용병서의 음가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시에 이를 두 자음의 결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박창원 1996:159). 만일 ‘ㅅ’계 합용병서를 경음 표기로 이해하는 처지에서 이러한 설명을 평행하게 받아들인다면 15세기에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 ‘ㅅ’계 합용병서를 택한 것은 당시에 경음을 두 자음의 결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표기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어 연구의 역사에서 경음을 단일 자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1920년대에 들어서서의 일이라는 점이 참조된다. 김두봉의 『김두봉의 1922년』(1922:49)에서 경음을 “한 소리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지만, 본격적인 단자음으로의 인식은 安自山의 『修正 朝鮮文法』(1923:8-9)에서부터였던 듯하다; ‘ㄱ, ㄷ, ㅌ, ㅅ, ㅈ’ 五音은 ‘ㄱ, ㄷ, ㅌ, ㅅ, ㅈ’ 等의 類似音으로서 … 此激音을 同一한 兩音이 一時에 并發하는 것 卽 重子音이라 하며 又 或은 本音이 둘만 단단하게 發한다 하니 이는 다 發音의 生理作用을 誤認한 것이라[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필자].

15) 한편 ‘받궤오며(법화 7:2, 奉)’와 ‘바궤와(능엄 2:40, 奉)’의 혼기는 ‘졸궤바’와 ‘조궤바’의 혼기에 영향을 받은 표기로 여겨진다(李翊燮 1992:168).

병서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표기에 드러나는 경음화는 ‘ㅅ’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관여한 데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3. 음소배열 제약과 어두자음군의 변화

국어에서 어두자음군은 어중 모음의 탈락으로 생성된 것인데 체계상으로도 매우 불안한 존재였다(李基文 1972/1978:132). 특히 그것은 음소배열 제약에 매우 민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⁶⁾ 그런 까닭에 ‘ㄷ’계 어두자음군이, 이미 15세기 중반에 여러 형태로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다음 예는 박창원(1996:151-152, 268)에서 재인용하였다).¹⁷⁾

- (7) 뽕-(월석 17:16)>뽕-(월석 19:20, 澁) 뽕-(월석 9:19)>뽕-(두해-초 25:19, 跳) 뽕-(두해-초 20:51)>뽕-(월석 10:24, 摘) 뽕-(능엄 7:88)>뽕-(능엄 2:69, 拂)
- (8) 뽕(훈민-원 해례:21)>뽕(법화 2:15, 隙) 뽕(능엄 2:95)>뽕(석보 19:7, 墮) 뽕(구방 하:32)>뽕(월석 21:45, 鑿) 뽕(월석 1:42)>뽕(훈몽-초 중:11, 密)

(7)은 ‘ㄷ’계 어두자음군에서 ‘ㄷ’ 뒤의 평음이 격음으로 바뀐 예이다. 이들은 어두 위치에서 ‘ㄷ’과 평폐쇄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으로 인하여 후행하는 평음이 격음화한 것으로 보인다.¹⁸⁾ 하지만 이러한 격음화는 어중에

16) ‘뽕(두해-초 7:17)/뽕(훈민-원 해례:24, 茅), ㅅ(용가 8:45, 77)/스-(두해-초 8:68, 用), ㅅ(월석 10:24)/ㅅ(용가 9:1, 78, 隨)’ 등에서처럼 비록 소수지만 15세기에 이미, 어두자음군의 첫 자음 ‘ㄷ’이 탈락한 예가 출현한다(박창원 1996:151). 이는 어두 위치에서 두 자음의 연속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어두자음군의 생성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어두자음군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제약이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국어에 어두자음군이 존재하는 한, 그 첫 자음의 탈락 가능성은 이미 언어 내적으로 함축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17) 이 논문에서는 ‘뽕-(초간본 두시언해, 1481년)>뽕-(월인석보, 1459년), 뽕(구급방언해, 1466년)>뽕(월인석보, 1459년)’ 등에서 보듯이 출현 문헌 자료의 간행 시기보다 음운 변화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18) 따라서 15세기의 어형 ‘ㅅ’과의 관련 아래 ‘寶姐’로부터의 轉訛를 인정하여 이른 시기의 ‘ㅅ’어두자음군의 경음화 즉 *ㅅ뽕>*뽕>ㅅ의 변화를 겪은 예로서 언급되어 온, 『계림유사』(‘女兒曰寶姐’)의 ‘寶姐’에 대해서는 轉訛를 인정하지 않고 ‘여

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바 이는, 적어도 15세기에는 어두자음군의 첫 자음 ‘ㄷ’과 어중 종성의 ‘ㄷ’이 음성 실현상의 차이를 가졌음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한편 (8)은 ‘ㄷ’계 어두자음군에서 첫 자음 ‘ㄷ’이 탈락한 예이다.¹⁹⁾ 이러한 ‘ㄷ’의 탈락은 음소배열상의 이유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즉 어두 위치의 초성에 두 자음을 허용하는 경우, 후행하는 자음은 ‘ㄱ’을 제외할 때 모두 치음과 치조음인바 이러한 음소배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ㄱ’ 앞에서 ‘ㄷ’의 탈락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리라는 것이다(박창원 1996:274-279). 김현(1997:24)에서 ‘ㄷ’은 ‘ㄱ’과 혼동을 보이지 않는데 “유독 ‘ㄷ’만이 혼란스러운 것은 … 형태소 내부의 변자음-변자음 연쇄가 자연스럽지 못함”에 기인하였을 것이라고 한 진술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하면 (7)과 (8)은 ‘ㄷ’과 평폐쇄음, 또는 ‘ㄷ’과 연구개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생성되기 시작함으로써 격음화나 ‘ㄷ’탈락을 보이게 된 예라는 것이다. 어두자음군의 변화를 조음방법이나 조음위치상의 음소배열 제약과 관련을 지은 셈이다.

이처럼 ‘ㄷ > ㅌ’이나 ‘ㄷ > ㅍ’의 변화를 겪은 예들을 제외하면 문헌상에서는 대체로, 15세기의 어두자음군이 17세기 전반까지는 제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1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경음으로 변화하였다(李基文 1972/1978:193). 하지만 일부 방언은 이와, 사정을 약간 달리하기도 하였다.

(9) 터럽다(뽀-; 석보 19:20, 뽀다)²⁰⁾ 툇다(뽀-; 능엄 2:69, 拂, 뽀다)

(10) ㄱ. 테(뽀; 금삼 2:38, 뽀목) 트다(뽀-; 월곡 65, 開, ㅌ다) 튀다(뽀-; 능엄

자’와 관련된 意味 未詳의 형태로 남겨 둔다(鄭承喆 1997:431). 이를 轉訛로 보아온 것은 아마도 『계림유사』의 ‘女兒曰寶姐’ 바로 위의 항목 ‘男兒曰了姐[아들]’에서 ‘姐→傭’의 轉訛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관련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姜信沆(1980)에는 『계림유사』의 이본으로 ‘順治板說郭本(1647), 明鈔本說郭本(1927), 五朝小說大觀本(1926)’이 실려 있는데 어느 것에서도 ‘寶姐’가 ‘寶傭’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男兒曰了姐’에 한하여 ‘明鈔本說郭本’에 ‘男兒曰了傭’이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19) 李基文(1972/1978:132)에서는 ‘ㄷ’이 ‘ㄱ’으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만 하였다.

20) 제주 방언에는 ‘터럽다, 떠럽다’보다 ‘초럽다, 쪼럽다’가 계층적·지역적으로 더 널리 분포한다.

8:139, 뛰다)

ㄴ. 반착(착; 훈민-원 해례:21, 반쪽) 츠다(ㅈ-; 능엄 9:53, 織, 짜다)

(11) 속(속; 능엄 3:75, 艾, 쑥) 실게(뜰게; 금삼 2:60, 쓸개)

(9)와 (10)은 제주 방언에서 15세기 국어의 ‘ㅂ’계 어두자음군이 격음으로, (11)은 평음으로 대응되는 예들이다(鄭承喆 1995:161-171). 이는 이전 시기의 제주 방언에 ‘ㅂ’계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으며 그것이 어느 시기인가 ‘ㅂ’ 뒤에 서 격음화를 겪어 현대 제주 방언에서 격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崔林植 1989:119).²¹⁾ 하지만 (11)의 ‘속, 실게’에서 보듯 어두자음군 ‘ㅂ’의 경우에는 ‘ㅅ’의 격음이 체계상의 공백을 이루었기에 이러한 격음화의 물결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鄭承喆 1995:166). (9)-(11)의 예가 모두, 제주 방언에서 어두 ‘ㅂ’의 탈락을 겪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어두자음군의 격음화와 관련하여 (9)와 (10)의 예가 변화의 동시성까지 함축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현대 방언에 나타나는 ‘ㅂ’어두자음군의 방언 반사형과 ‘ㅃ, ㅍ’어두자음군의 방언 반사형 사이에 분포상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령 ‘ㅂ’어두자음군의 ‘뽏다(뽏다)’가 격음으로 반사된 방언형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과 金泰均(1986)에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다.

(12)ㄱ. 뽏다 : 경남(거창·창녕·의령·진양·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 함북(길주·명천·경성·종성·회령)

ㄴ. 뽏다 : 경기(파주·고양·용진), 강원(평창·명주·원성·영월·정선·삼척), 충북(제원·단양), 충남(당진)

이로부터 ‘ㅂ’어두자음군의 격음 대응형은 서남 방언과 서북 방언을 제외하고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²²⁾ 하지만 ‘ㅃ, ㅍ’어두자음군의

21) 이를 ‘ㅂ’탈락 이후에 자생적인 어두 격음화를 겪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15세기 국어의 ‘ㅃ, ㅍ’어두자음군이 거의 예외 없이, 현대 제주 방언에 격음으로 대응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22) 아마도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뽏다(拂)’와 관련된 ‘재떨이(재떨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자료집을 통해서도 이 방언형의 지리적 분포를 확인할 수 없어 예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격음 대응형은 제주 방언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²³⁾ 이러한 사실은 (9)의 예와 관련된 ‘ㅼ > ㅼ’의 격음화와 (10)의 예와 관련된 ‘ㅼ > ㅼ, ㅼ > ㅼ’의 격음화가 그 실현 시기를 달리하였음을 알려준다. 또 제주 방언에서 격음화의 動因이 되는 음소배열 제약이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간 것임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또는 그 이전 시기에 ‘ㅼ’와 평폐쇄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으로 인해 ‘ㅼ > ㅼ’의 격음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뽏다’가 ‘뽏다’로 변화하였다(이때에 변한 ‘뽏다’는 후에 어두 ‘ㅼ’탈락 등 일련의 변화를 겪어 현대 방언에서 ‘터럽다, 툇다, 툇다’와 같은 격음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격음화가 일어나는 도중에 어떤 다른 강력한 변화가 새로이 출현하여 대부분의 방언이 격음화의 적용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방언에서는, 격음화가 일어난 형태와 일어나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ㅼ’어두자음군이 새로운 형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하여 ‘뽏다’는 ‘뽏다’와 공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물결이 미치지 않은 제주 방언에서는 음소배열 제약이 ‘ㅼ’와 평음의 연결을 제한하는 데까지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서 격음화의 환경을 갖춘 모든 어두자음군이 격음화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다른 방언에서는 이와 평행하게 음소배열 제약과 경음화의 적용 영역이 확대된다). 그런 까닭에 초기의 ‘ㅼ > ㅼ’변화를 겪은 ‘ㅼ’어두자음군은 오늘날에 와서 격음형이 거의 전국적으로 출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변화를 겪지 않은 ‘ㅼ, ㅼ’어두자음군은 제주 방언에만 격음형이 분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어느 시기엔가 어두 ‘ㅼ’이 탈락하였음은 물론이다).²⁴⁾ 이처럼 격음화가 일어나는 도중에 새로이 출현하

23) 격음 대응형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의 ‘오른참(경남 합천, 오른쪽)’이나 ‘둘채아버지, 세채아버지’ 등의 ‘-채(강원 흥천, 전북 익산·완주·진안·무주·임실·장수·정읍·고창, 전남 영광·순창·광양)’, 金履浹(1981)의 ‘-채(평북, -째)’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ㅼ’어두자음군에서 기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격음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24) 현대 제주 방언에는 ‘ㅼ, ㅼ’어두자음군에 관한 한, 대체로 격음형과 경음형이 공존한다. 따라서 경음화가 영향을 미쳤을 시기에 ‘ㅼ > ㅼ, ㅼ > ㅼ’의 변화를 입은 어형과 그렇지 않은 어형이 공존하고 있었음이 전제된다. 한편 제주 방언에 경음화의 전파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한 과제가 되기도 한다.

여 전국 대부분의 방언에서 격음화를 저지한 변화는 바로 ‘경음화’였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⁵⁾

앞서 15세기 국어에 ‘ㅅ’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ㅅ’ 뒤에서 평음의 경음화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서 종성 위치의 ‘ㅅ’이 ‘ㄷ’으로 중화되는 변화(李基文 1972/1977:86)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음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전의 행위를 보임으로써 폐쇄음 ‘ㄷ’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을 새로이 형성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밭소-(훈몽-초 상:18, 易), 맛쌀(훈몽-초 하:13, 任)’ 등은 ‘ㄷ’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으로 인해 일어난 경음화라는 것이다(이진호 1997:110-112, 鄭承喆 1997:438-439). 이러한 양상은 근대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모든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근대국어 시기 특히 19세기에는 국어 대부분의 방언에서 치조음 ‘ㄷ’뿐 아니라 모든 폐쇄음이,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화하게 되었던 것이다(이진호 1997:113, 崔明玉 1998:371-388).

이러한 음소배열 제약에 바탕한 경음화는 문헌상에서는 적어도 17세기 이전에 어두 위치에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문헌에 어두 자음군의 경음 표기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할 뿐 아니라 ‘ㅁ, ㅂ’에 대한 ‘ㅁ, ㅂ’이 출현한다는 사실(李基文 1961:160-161, 田光鉉 1967/2003:59-63)이 이를 알려준다. 특히 ‘ㄷ’ 뒤의 경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초성 합용병서 ‘ㅁ, ㅂ’의 출현은, 역으로 이 환경에서 일어난 경음화의 존재를 지지해준다.

이러한 경음화는,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과 더불어 국어의 모든 방언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주 방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른 방언에 비해 좀 늦추어져 있었던

25) 李基文(1955:246)의 다음 진술이 주목된다; 陸地方言에 있어서도 한때 p系列의 Aspirata에의 發達 傾向이 적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들 子音群이 Aspirata로 發達할 可能性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傾向은 필시 硬音에의 大勢에 휩쓸려 지금은 極少數의 흔적만이 남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는 反對로 Aspirata가 大勢를 리드한 濟州島 方言은 오히려 그쪽으로 쏠리게 되었던 것 같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까닭에 새로이 발생한 경음화가, 어두자음군의 격음화를 저지하였던 다른 방언과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ㅍ, ㅍ’어두자음군의 격음 대응형을 밀어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의 음운 현상이 방언마다 그 생성 또는 전파 시기를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 태도를 따르는 셈이다.

한편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의 생성 과정에서 일부 방언은, 특정한 환경에서 경음화가 아니라 격음화를 선택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13) ㄱ. 섧다(췌다), 뒤섧다(뒤췌다) : 전남(담양·여수)
- 나. 깡크다(꺨다) : 전남(해남·강진·완도·고흥)
- 다. 꺨크다(꺨다) : 전남(완도)

(13)은 이기갑 외(1998)에 나타나는 예이다.²⁶⁾ 15세기 국어의 ‘췌-(월석 2:49, 錯), 𪗇-(월곡 120, 削), 𪗇-(용가 5:38. 36, 折)’를 고려하면 이들은 어간말의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에서 격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맛트-(맛튼; 동신총 1:48, 任)’가 ‘꺨-(용가 1:11. 6, 任)’로부터 격음화를 겪은 것이라면 (13)은 이와 평행한 예가 된다.²⁷⁾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의 ‘도키(충북 보은·옥천·영동, 충남 홍성·공주·보령·대덕, 전북 익산·완주, 경남 의령·양산), 도쿠(전남 신안, 경남 남해)’를 ‘뫓귀(월석 1:29, 도끼)’와, 이기갑 외(1998)의 ‘어치(전남 여천·구례), 메통이(전남 신안)’를 ‘엇디(두해-초 15:47, 어찌), 뫓도기(훈몽-초 상:12, 메뚜기)’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면 어중의 동일한 환경에서도 격음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의 지리적 분포가 대체로 서남방언과 그 인근 지역 그리고 경남 해안 지역에 한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에는 ‘꺨키다(꺨이다)’가 전남(완도)에서, ‘꺨키다(꺨이다)’가 경남(하동·김해·양산·사천·통영·거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때의 ‘꺨크다, 꺨크다, 꺨키다, 꺨키다’는 연구개음 앞에서의 ‘ㅇ’첨가를 겪은 것이다.

27) 鄭承喆(1995:195-196)에서는 제주 방언의 ‘부뜨다(불다)’를 통해 ‘ㅍ’말음 용언어간인 ‘*부트-’의 존재를 재구한 바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문헌어에는 15세기 이전에, 이 환경에서의 격음화가 존재한 것이 된다. 그것이 15세기에 ‘불-(세훈민 12, 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두자음군의 변화는 음소배열 제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ㅂ’과 평폐쇄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은 어두자음군의 격음화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격음화는 곧 대부분의 방언에서, 새로이 출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다른 음운 변화에 의해 저지되었다. 모든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제약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된 음소배열 제약과 더불어 새로운 음운 현상 즉 경음화가 격음화를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주 방언은 이러한 새 음운 변화의 주류에서 한동안 벗어나 있었다. 그런 까닭에 어두자음군의 격음화를 경험한 어형이 오늘날에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한 언어 안에서의 음운 변화는 규칙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보통, 유추나 차용이 관여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음운 변화의 적용 환경이나 전파 속도를 달리하였든지, 또는 다른 음운 변화의 간섭이 이루어졌든지 하여 예외들을 함께 보여주기 마련이다(金完鎭 1974). 하나의 음운 변화에, 규칙성과 예외성이 동시에 내포되는 일이 매우 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어두자음군의 변화 또한 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격음화와 경음화가 적용 환경이나 전파 속도를 달리하는 가운데 서로를 간섭하여 어두자음군의 상이한 방언적 투영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음운 변화를 관찰함에 있어, 예외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변화의 과정을 면밀히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외들로 가려진 음운 변화의 규칙성을 부각시키는 일이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국어의 ‘ㅂ’계와 ‘ㅃ’계 초성 합용병서는 ‘ㅂ’계 어두자음군을 표기한 것이었다. 당시의 어두자음군은 첫 자음이 ‘ㅂ’이고 후행하는 자음이 ‘ㄱ, ㄷ, ㄸ, ㅌ, ㅆ, ㅈ’일 경우에 한하여 실현되었다(李基文 1972/1977:56-63). 이러한 어두자음군은 음소배열 제약과의 밀접한 관련 아래 변화를 경험하였다. 15세기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어두 위치

에서 ‘ㅂ’과 평폐쇄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은 어두자음군의 격음화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제주 방언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이러한 격음화는 곧, 새로이 출현한 경음화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것은 경음화의 動因이 된, ‘ㄷ’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이 모든 폐쇄음과 평음의 연결을 꺼리는 제약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서 초래된 결과였다. 하지만 제주 방언은 이처럼 새로이 출현한 경음화의 물결 속에서 한동안 벗어나 있었다. 그리하여 다른 방언에서와는 달리 제주 방언에서 어두자음군의 격음화를, 어두자음군의 소멸 이전 어느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李基文 1955). 어두자음군의 첫 자음 ‘ㅂ’이 전면적으로 탈락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그것은 어두 위치에서 두 자음의 연결을 꺼리는 음소배열 제약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필자: 인하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 고 문 헌

- 姜信沆(1980),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성균관대 출판부.
- 고동호(1995), 『국어 마찰음의 통시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서울대 대학원).
- 郭忠求(1994),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태학사.
- _____(1994), 『強勢 接尾辭의 方言形과 그 文化化 過程에 대하여』, 『霽曉 李庸周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태학사, 1-25면.
- _____(1997), 『音節의 變化』, 『國語史研究』, 태학사, 387-421면.
- 김성규(1996), 『중세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7-55면.
- 金完鎭(1974), 『音韻變化와 音素의 分布』, 『진단학보』 38, 105-120면.
- _____(1986), 『음운과 문자』, 신구문화사.
- 金履浹(1981), 『平北方言辭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周弼(1988), 『中世國語 音節末 齒音의 音聲的 實現과 表記』, 『국어학』 17, 203-228면.
- _____(1990), 『國語 閉鎖音의 音聲的 特徵과 音韻現象』, 『國語學論文集』, 태

학사, 451-477년.

김차균(1992), 『사이스의 음운론』, 『국어학』 22, 191-236면.

金泰均(1986), 『咸北方言辭典』, 경기대 출판국.

김 현(1997), 『15세기 국어 자음연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45.

金亨柱(1987), 『國語史 研究』, 동아대 출판부.

박창원(1990), 『竝書』,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69-177면.

_____(1996),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白斗鉉(1990), 『嶺南 文獻語의 通時的 音韻 研究』, 박사학위 논문(경북대 대학원).

宋喆儀(1987), 『十五世紀 國語의 表記法에 대한 音韻論의 考察』, 『국어학』 16, 325-360면.

安秉禧(2003), 『解例本의 八終聲에 대하여』, 『국어학』 41, 3-24면.

吳貞蘭(1988), 『硬音의 國語史的 研究』, 한신문화사.

이기갑 · 고광모 · 기세관 · 정제문 · 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李基文(1955), 『語頭 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진단학보』 17, 187-258면.

_____(1959/1978),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탑출판사.

_____(1961), 『國語史概說』, 민중서관.

_____(1972/1977), 『國語音韻史研究』, 탑출판사.

_____(1972/1978), 『改訂版 國語史概說』, 탑출판사.

李秉根(1976), 『19세기 國語의 母音體系와 母音調和』, 『국어국문학』 72·73, 1-14면.

_____(1981),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탑출판사.

_____(1988), 『訓民正音의 初·終聲體系』,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59-80면.

이상규(2000),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李丞宰(1983), 『再構와 方言分化』, 『국어학』 12, 213-234면.

李翊燮(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대 출판부.

이진호(1997), 『국어 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음운론』, 『국어언

구』 147.

이현희(1996), 『중세 국어 자료(한글 문헌)』,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210-247면.

田光鉉(1967), 『十七世紀 國語의 研究』, 『국어연구』 19.[재수록; 『국어사와 방언』 1, 월인, 2003, 7-101면]

_____(1997),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7-54면.

全哲雄(1998), 『忠北方言의 歷史的 研究』, 보고서.

鄭承喆(1995),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태학사.

_____(1997), 『자음의 변화』, 『國語史研究』, 태학사, 423-455면.

제주방언연구회 편(1995), 『濟州語辭典』, 제주도.

崔明玉(1982), 『月城 地域語의 音韻論』, 영남대 출판부.

_____(1985), 『19世紀 後期 西北方言의 音韻論』, 『인문연구』(영남대) 4, 713-746면.

_____(1993), 『語幹의 再構造化와 交替形의 單一化 方向』, 『성곡논총』 24, 1599-1642면.

_____(1998), 『19世紀 後期 國語의 音韻論』, 『國語音韻論과 資料』, 태학사, 325-415면.

崔林植(1989), 『國語 內破化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 논문(계명대 대학원).

_____(1994), 『國語方言의 音韻史의 研究』, 문창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韓國方言資料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어문각.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_____(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洪宗林(1998), 『제주방언의 ‘ㅎ’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19, 1-25면.

<Abstract>

On the Phonological Change of the Word-initial Consonantal Clusters in Korean

Jung, Seung-chul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Korean consonantal clusters, especially in word-initial. In order to achieve the aim, we examine the word-initial consonantal clusters and their phonotactic constraints in Middle Korean, and then investigate their equivalent forms in Contemporary Korean dialects. Finally, we identify their diachrony through comparing the Middle Korean forms with their contemporary dialectal forms.

The main poi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re were the word-initial clusters 'pk'(ㅍㄱ), pt(ㅍㄷ), pt'(ㅍㄷ'), pth(ㅍㅅ), ps(ㅍㅅ), ptj(ㅍㄷㅈ)' in Middle Korean. Firstly, the aspiration of 't' occurred in 'pt' cluster, which was due to the phonotactic constraint, exactly 'lenis-lenis stop linking constraint'. Secondly, the aspiration was substituted by the fortition, and the phonotactic constraint was expanded into 'lenis-lenis linking constraints'. But in Jeju dialect, these phonological changes were happened lately. As a result, the aspiration of 'tj' occurred in 'ptj' cluster as well as 't' in 'pt' cluster in Jeju dialect. Lastly, the initial consonant 'p' of every cluster was deleted in all dialects.

Key Words : phonological change, word-initial consonantal cluster, phonotactic constraint, aspiration, fortition